

질서도 통행도 한 번에 해결 노점실명제



- 도심 곳곳에 펼쳐진 노점으로 더럽고 걷기 불편했던 거리가 ‘노점실명제’로 밝고 깨끗한 걷고 싶은 거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.
-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권리, 중구가 지켜드립니다.



일반도로 변 노점 실명제



전통시장 내 노점 실명제



노상 적치물 정비

사업 개요

노점실명제 실시로 거리환경 개선

- 2015년 1월 중구거리가게 운영 규정 제정
- 불법 영업형태의 노점을 합법적으로 전환, 허가를 통한 사업자등록
- 선별적 갱신허가를 통한 점진적 노점 축소
⇒ 기업형 노점 퇴출, 법질서 확립과 안정적 노점 운영 유도
- 노점 적정 밀도와 규격 유지, 노점 정비 병행
⇒ 남대문시장, 중앙시장, 중부·신중부시장, 동대문, 명동 일대 등 987개소 정비

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권 확보

- 노상적치물 및 노점 밀집구간 집중단속
 - 남대문시장(포장마차), 중앙시장(보리밥골목, 포목부)
 - 명동·청계천, 마장로 등 민원 다발지역 적치물 집중 정비

추진 실적

- 일반 노점(동대문 주변, 마장로, 황학동, 기타 지역) 1,029개 중 노점실명제 539개소(52%)
- 전통시장 내 노점(남대문시장, 중앙시장, 중부시장) 노점실명제 485개소 시행
 - ※ 2016년 12월말 561개소 → 2017년 8월말 485개소(▽76개소, ▽13%)